

부사 ‘已經’의 의미 연구

이은수*

目 录

1. 서론
2. ‘已經’의 화용적 기능
3. ‘已經’의 의미
 - 1) ‘已經’의 시간 의미
 - 2) ‘已經’의 시간 의미와 화용적 기능과의 관계
4.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 부사 ‘已經’의 의미에 대해 《現代漢語詞典》은 ‘사건이 완성됨 또는 시간이 지나감’으로,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동작, 변화가 완성되거나 어느 정도에 도달함’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馬眞(2003)은 이 두 저작의 예문들이 이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1) 任務已經完成/ 事情已經結束/ 問題已經解決
임무는 이미 마쳤다/ 일이 이미 끝났다/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 (2) 他們已經來了/ 天已經黑了/ 他已經走了
그들이 이미 왔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그는 이미 갔다

* 圓光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먼저 ‘시간이 지나감’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고, 다음으로 ‘사건의 완성’이나 ‘동작, 변화의 완성’ 의미는 대체로 ‘已經’이 없이도 전달되는 의미이며, ‘어느 정도에 도달함’이란 의미의 경우에도 ‘已經’이 있는 문장이 변화의 의미는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馬眞(2003)이 새롭게 귀납해낸 ‘已經’의 어법 의미는 ‘문장에서 전달하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화 이전, 또는 어떤 행위 동작 이전, 또는 어느 특정 시간 이전에 사실이 됨’이다. 다음 중 (3)은 발화 이전에, (4)는 과거의 특정 시간 이전에, (5)는 미래의 특정 시간 이전에 각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a. 他已經同意了。
그는 이미 동의했다
b. 那事兒我已經跟他說了。
그 일은 내가 이미 그에게 말했다.
- (4) 等我趕回上海時, 奶奶已經離開人世了。
내가 상해에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 (5) 明天下午這個時候他已經到家了。
내일 오후 이맘 때 그는 이미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은수(2006)와 같이 ‘발화시’나 ‘어떤 행위 동작의 시간’, ‘어느 특정 시간’ 등을 ‘참조 시간’의 개념으로 묶는다면, 馬眞(2003)의 정의는 ‘문장이 전달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사실이 됨’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상황 시간의 참조 시간에 대한 선시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馬眞(2003)이 아래의 예를 통해 밝힌 것처럼, ‘已經’이 있는 문장은 해당 상황이나 그 결과가 참조 시간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 (6) 我已經喪失了信心。(現在仍無信心)
난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
- (7) 我已經戒了煙。(現在不抽煙了)

난 이미 담배를 끊었다.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따라서 '已經'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상황 시간의 참조 시간에 대한 선시성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 말하는 상황이나 그 결과가 참조 시간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여 '현재와의 관련성'을 '已經'의 의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夏群(2011)도 언급했듯이 '已經'의 이러한 의미는 '了'의 의미와 유사한 면이 있다. Li, Thompson and Thompson(1982)과 望月圭子(2000)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了'를 포함하는 문장은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있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상황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가 참조 시간에 유지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了' 역시 '선시성'과 '현재와의 관련성'이라는 시간 의미를 나타내므로 '已經'이 나타내는 시간 의미와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邵洪亮(2013)도 '已經'과 '了'가 공기할 때 양자의 기본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已經'이 있는 문장에서 '已經'을 빼더라도 문장의 기본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다만 '已經'을 빼면 '견해를 밝힘, 확인함' 등의 어기 기능이 다소 약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이 맞다면 '已經'은 단지 '了'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뿐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출현한다면 의미적 잉여성을 낳게 될 것이다.

- (8) 我已經寫了回信了。= 我寫了回信了。
 (9) 這篇課文我已經朗讀三遍了。= 這篇課文我朗讀三遍了。
 (10) 我昨天已經離開上海了。= 我昨天離開上海了。

그러나 이와 달리 '已經'에는 '了'와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먼저 술어에 수량이 있는 문장에 '已經'이 쓰이면, 그 문장은 해당 수량이 많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¹⁾

1) (11), (12)는 張言軍(2013)의 예이다.

- (11) 老師要求我們每個人看三遍, 我已經三遍了。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 번 보라고 요구했는데, 난 이미 세 번 했다.
- (12) 他寫了不少了, 已經兩千字了。
그는 적지 않게 썼다. 이미 이천자다.

또한 문맥에 따라 (13), (14)처럼 ‘已經’이 없으면 문법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15), (16)처럼 ‘已經’을 추가하면 문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²⁾

- (13) A: 你別把這件事告訴他。
너 이 일을 그에게 알려주지 마라.
B: a. *我告訴他了。 b. 我已經告訴他了。
내가 그에게 알려줬어. 내가 이미 그에게 알려줬어.
- (14) A: 我希望成爲富人。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B: a. *你是富人了。 b. 你已經是富人了。
너는 부자가 되었다. 너는 이미 부자다.
- (15) A: 你爲何遲到?
넌 왜 지각했나?
B: a. 我生病了。 b. *我已經生病了。
난 아팠어. 난 이미 아팠어.
- (16) A: 他爲何不跟我們一起吃飯?
그는 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지 않나?
B: a. 他的父母來了。 b. *他的父母已經來了。
그의 부모님이 왔다.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왔다.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볼 때, ‘已經’에는 ‘了’와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了’와 구별되는 ‘已經’의 시간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기준에 알려진 ‘已經’의 시간 의미와 위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주로 화용적으로 나타나는 ‘已經’의 기타 기능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13)~(16)은 鄒海清(2012)의 예이다.

2. '已經'의 화용적 기능

상술했듯이 '已經'은 그 기본적인 시간 의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타 기능들을 함께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학자들은 보통 이러한 기능들을 '已經'이 시간 의미 외에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화용 측면의 기능으로 본다. 즉 '已經'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간 의미이며, 그 밖에도 여러 화용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절에서는 '已經'의 화용적인 기능으로 제기되어온 것들을 검토해보고 '已經'이 과연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하자.

먼저 '已經'에 '기대와 다름'(反預期)을 나타내는 화용적인 기능이 있다고 본 許諾(2015)를 살펴보자. 그는 '已經'이 '선시성'을 나타낸다고 본 기존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다음의 간단한 대답쌍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 |
|------------------------------|--------------------|
| (17) a. 我已經吃過了。
난 이미 먹었다. | b. 我吃過了。
난 먹었다. |
| (18) a. 已經三點了。
이미 세 시다. | b. 三點了。
세 시다. |

(17)a, (18)a는 참조 시간이 발화 시간으로 해석되므로, 내가 밥을 먹은 것과 세 시가 된 것이 발화 시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已經'을 뺀 (17)b, (18)b 역시 발화 시간 이전에 그러한 완성이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므로, 기존의 '선시성'로는 (17), (18)과 같이 '已經'의 유무에 따른 대답쌍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已經'에 기본적인 시간 의미 외로도 담화상에서 '기대와 다름'을 나타내는 화용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기대와 다름'이란 화자가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가 문맥상 기대되는 정보와 반대되거나 부합되지 않음을 말한다.

- | | |
|------------------------------------|------------------------------|
| (19) A: 他什麼時候回來?
A: 그는 언제 돌아오니? | B: 他已經下班了。
B: 그는 이미 퇴근했어. |
|------------------------------------|------------------------------|

기존의 ‘선시설’에 따르면, 위의 마지막 문장에 있는 ‘已經’은 단순히 ‘下班’이라는 사건이 발화 시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許諾(2015)의 견해에 따르면, ‘他什麼時候回來?’라고 묻는 A는 ‘小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B는 ‘已經’을 통해 ‘小張下班’이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부각시켜 문맥상의 기대 정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20) 唐鐵嘴: 聽說後面改了公寓, 租給我一間屋子, 好不好?

듣자 하니 뒤쪽에 아파트로 고쳤다던데, 나한테 방 하나 세 내주는게 어때?

王利發: 唐先生, 你那點嗜好, 在我這兒恐怕……

당씨, 당신 그 좋아하는 게, 여기서서는 아무래도……

唐鐵嘴: 我已經不吃大煙了!

난 이미 아편 안 해!

許諾의 설명에 따르면, 위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은 ‘不吃大煙了’이다. 그런데 ‘你那點嗜好’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자는 화자가 ‘吃大煙’의 기호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已經’을 통해 ‘不吃大煙’이라는 상황이 이미 사실이 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청자의 기대 정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已經’이 수량과 함께 쓰인 문장을 생각해 보자. 다음 역시 許諾의 예이다.

(21) 一直到凌晨三點, 誰也沒有一點困意, 最後, 還是毛澤東看了看錶, 煞住了話頭,

說: “已經三點了, 你們太累了, 該休息了. 我們明天再談吧!”

새벽 세 시까지 아무도 졸리지 않았다. 결국 모택동이 시계를 보고는 말을 마무리지었다. “벌써 세 시네.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니 쉬어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已經’이 수량과 함께 쓰이면 보통 ‘主觀大量’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러한 용법도 許諾는 ‘기대와 다름’이라는 화용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즉 담화에서는 보통 청자나 화자에게 정상적인 양을 상정하게 되는데, 화자는 ‘已經’을 통

해 이러한 정상적인 양을 넘는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主觀大量'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許諾(2015)는 '已經'의 시간 의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예들을 '기대와 다름'이라는 담화상의 기능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그러나 '已經'이 있는 모든 문장이 '기대와 다름'이라는 담화상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³⁾

(22) 如果她已經組成了家庭, 我也要見她一面。

만약 그녀가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면, 나도 그녀를 한 번 만나야겠다.

(23) 至少我已經工作, 比你還是強點, 走吧, 吃中飯去!

최소한 난 이미 일하고 있잖아. 너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아.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22)에서 '已經'은 '청자의 기대와 달리' 그녀가 가정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22)는 단지 참조 시간인 발화 시간 이전에 그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23)에서도 화자가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은 청자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已經'은 청자의 기대와 달리 이미 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단지 참조 시간인 발화 시간 이전에 화자가 일을 시작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4) 她挺着身子躲我, 嘴裏告饒: “何雷何雷, 我已經是你老婆了, 攔着攔着也跑不了, 別逮不着似的。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나를 피하며, 입으로는 용서를 빌었다 “何雷, 何雷, 난 이미 당신 마누라잖아요. 내버려둬도 도망 못 가요. 못 잡을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25) 越看越可愛, 就是那不盡合自己的理想的地方也都可以原諒了, 因為已經是自己的車了。

볼수록 더 예뻐서, 자기 생각에 차지 않는 부분도 용서할 만 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자신의 차이기 때문이다.

3) (22), (23)은 郭春貴(1997)의 예이다.

위의 張亞軍(2002)의 예를 살펴보자. (24)의 ‘已經’은 청자의 기대와 달리 화자가 청자의 부인이 되었음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단지 참조 시간인 발화 시간 이전에 해당 상황이 기정 사실이 되었음을 나타낼 뿐이다. (25)에서도 ‘已經’은 청자의 기대와 달리 어떤 차가 자기 차가 되었음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단지 발화 시간 이전에 해당 상황이 기정사실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볼 때, ‘已經’이 있는 모든 문장이 반드시 ‘기대와 다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已經’이 그러한 화용적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已經’이 출현하는 문맥의 상당 부분이 ‘기대와 다름’의 의미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鄒海清(2012)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는 문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已經’의 출현이나 생략에 제약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已經’의 출현이나 생략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26)의 대답에서는 ‘已經’이 있으면 문법성이 떨어지고 (27)에서는 ‘已經’이 없으면 문법성이 떨어진다. 반면 (28)의 대답에서는 ‘已經’의 출현이나 생략이 자유롭다.

- (26) A: 你爲何遲到?
넌 왜 지각했니?
B: a. 我生病了。 b. *我已經生病了。
난 아팠어. 난 이미 아팠어.
- (27) A: 我希望成爲富人。
난 부자가 되고 싶다.
B: a. *你是富人了。 b. 你已經是富人了。
넌 부자가 되었어. 너는 이미 부자가 되었어.
- (28) A: 響下課鈴了嗎?
수업 마치는 종이 울렸니?
B: a. 響了。 b. 已經響了。
울렸어. 이미 울렸어.

鄒海清(2012)은 이러한 차이가 ‘已經’에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함’이라는 화용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26)의 질문은 이미

발생한 사건(지각)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의문문인데, 질문하는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대답하는 사람의 말을 진실한 정보로 믿게 된다.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유로 제시하는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已經'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7)의 첫 문장은 어떤 바람(부자가 되고 싶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예상과 달리 그 상황이 이미 일어나 있다면,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바람을 들은 화자는 반드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만 하므로 이때는 '已經'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8)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묻고 있는 정보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청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그 긍정적인 대답 자체가 청자가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는 성격의 대답이 되므로 '已經'을 쓰지 않아도 '已經'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로 '확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때는 '已經'의 출현이나 생략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鄒海清(2012)의 주장은 '已經'의 화용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기능 역시 '已經'이 있는 모든 예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 (22) 如果她已經組成了家庭，我也要見她一面。
만약 그녀가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면, 나도 그녀를 한 번 만나야겠다.
- (23) 至少我已經工作，比你還是強點，走吧，吃中飯去！(郭春貴 1997)
최소한 난 이미 일하고 있잖아. 너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아.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 (24) 她挺着身子躲我，嘴裏告饒：“何雷何雷，我已經是你老婆了，攔着攔着也跑不了，別逮不着似的。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나를 피하며, 입으로는 용서를 빌었다 “何雷，何雷， 난 이미 당신 마누라잖아요. 내버려둬도 도망 못 가요. 못 잡을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예를 들어 ‘已經’은 (22)에서처럼 ‘가정’을 나타내는 문맥에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鄒海清(2012)의 주장이 옳다면 (22)에는 ‘已經’을 쓸 수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별 문제 없이 쓰이고 있다. (23), (24)에서는 이 문장의 화자 뿐 아니라 청자도 해당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자가 ‘已經’을 통해 청자에게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에서는 ‘已經’의 ‘선시성’이란 시간 의미만으로는 실제 문맥에서 보이는 ‘已經’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기본적인 시간 의미 외로 ‘已經’이 어떤 화용상의 의미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기대와 다름’ 또는 ‘상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 등의 기능은 ‘已經’이 있는 모든 예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화용상의 기능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시간 의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已經’의 시간 의미와 기타 화용상의 기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 ‘已經’의 의미

1) ‘已經’의 시간 의미

‘已經’과 ‘了’의 시간 의미를 비교해 보기 위해 馬眞(2003)의 예문을 다시 검토해보자.

- (29) a. 他已經同意了。
나는 이미 동의했다.
b. 我已經吃過飯了。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
c. 她已經不抽煙了。

- 그는 이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30) a. 昨天晚上八點我去他家, 他已經躺下睡了。
어제 저녁 8시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누워 자고 있었다.
- b. 等我趕回上海時, 奶奶已經離開人世了。
내가 상해로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 (31) a. 明天下午這個時候他已經到家了。
내일 오후 이맘때 그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을 거야.
- b. 你這樣磨磨蹭蹭, 恐怕我們趕到車站的時候, 火車已經開走了。
네가 이렇게 꾸물거리면, 아마도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을 거야.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馬眞(2003)이 귀납해낸 '已經'의 어법 의미에다 '참조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馬眞(2003)의 정의는 '문장이 전달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사실이 됨'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상황 시간의 참조 시간에 대한 선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에서 참조 시간은 발화 시간이고, (30)의 참조 시간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며, (31)에서 참조 시간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다. 참조 시간은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일 수 있으며, '已經'은 바로 이 참조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29)~(31)의 예문들은 '已經'과 '了'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已經'과 '了'의 시간 의미가 '선시성'으로 동일하다면 (29)~(31)에서 '已經'을 빼더라도 동일한 시간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이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已經'를 빼보면 예문들은 서로 다른 문법성을 보인다. (29)의 예문들은 '已經'을 빼도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문장이 성립하지만, (30), (31)의 예문들은 '已經'을 뺄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 (29) a. 他同意了。
b. 我吃過飯了。
c. 她不抽煙了。
- (30) a. *昨天晚上八點我去他家, 他躺下睡了。
b. *等我趕回上海, 奶奶離開人世了。

- (31) a. *明天下午這個時候他到家了。
 b. *你這樣磨磨蹭蹭, 恐怕我們趕到車站, 火車開走了。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는 참조 시간의 차이와 관련된다. (29)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 시간이 발화 시간일 경우에는 ‘了2’가 발화 시간이라는 참조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已經’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반면 (30), (31)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 시간이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간이라면 ‘已經’ 없이 ‘了2’만으로는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기 어렵다.

다시 말해 ‘了2’도 ‘선시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已經’ 등의 도움이 없이) ‘了2’만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조 시간이 발화 시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了2’ 단독으로는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을 참조 시간으로 삼아 그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을 참조 시간으로 삼으려면 ‘已經’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 참조 시간이 발화 시간일 때에도 ‘已經’의 출현 여부는 약간의 의미 차이를 낳는다. ‘他同意了’, ‘我吃過飯了’, ‘她不抽煙了’는 동의하거나 밥을 먹었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변화 등이 발화 시간 이전에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已經’ 없이 ‘了2’만 있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나 발생은 참조 시간인 발화 시간에 매우 가깝게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他已經同意了’, ‘我已經吃過飯了’, ‘她已經不抽煙了’ 등은 ‘已經’이 없는 문장에 비해 상황의 변화나 발생이 발화 시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리하자면 ‘了2’는 단지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일반적으로 발화 시간) 이전에, 특히 참조 시간과 상당히 가깝게 발생했음을 나타내지만 ‘已經’은 참조 시간 이전, 특히 참조 시간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훨씬 더 이전에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⁴⁾

4) 아마도 이러한 의미 특징 때문에 ‘了2’는 발화 시간만을 참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고, ‘已經’은 발화 시간 외에도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간을 참조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러한 차이는 다음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 (32) a. 李四忽然咳嗽了。 b. *李四忽然已經咳嗽了。
이사가 갑자기 기침했다. 이사가 갑자기 이미 기침했다.

‘李四忽然咳嗽了’는 참조 시간(여기서는 발화 시간) 이전에 상황(기침)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므로 역시 선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已經’이 ‘了’와 동일하게 선시성을 나타낸다면 (32)a에 ‘已經’을 넣어도 문장이 성립해야 하겠지만, (32)b에서 볼 수 있듯이 ‘已經’을 넣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침하는 것 자체가 본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忽然’은 다시 어휘적으로 그 상황이 갑작스레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32)a는 발화 시간 이전에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상황을 기술하는 화자에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므로, 발화 시간에 가깝게, 또는 발화 시간 직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已經’은 참조 시간인 발화 시간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훨씬 더 이전 시간에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므로 (32)b처럼 ‘已經’을 넣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또 다른 선시성 표지인 ‘了’와 대조를 이룬다. ‘了’는 상황의 발생 시간이 발화 시간과 아무리 가깝더라도 발화 시간 이전에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了’를 써서 선시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달리 ‘已經’은 발화 시간과 확실히 구별되는 그 이전의 시간에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만 ‘已經’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에서처럼 돌발 상황

된 것으로 보인다. 발화 시간은 과거와 미래, 이미 발생한 상황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을 나누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므로, 어떤 상황이 발화 시간에 아무리 가깝게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발화 시간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가 쉽게 구별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과 상당히 가깝게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了’만으로도 발화 시간을 참조 시간으로 삼아 선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같이 문맥상 임의로 정해진 시점을 참조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는, 상황 발생 시간과 참조 시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了’만으로는 선시성을 나타내기 어렵고, 상황 발생 시간과 참조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已經’이 있어야만 분명한 선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있는 화자가 그 돌발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에서는 ‘已經’을 쓸 수 없다.⁵⁾

- | | |
|-----------------------------|------------------------------|
| (33) a. 進球了!
골인입니다! | b. *已經進球了!
이미 골인입니다! |
| (34) a. 我們贏了!
우리가 이겼다! | b. *我們已經贏了!
우리가 이미 이겼다! |
| (35) a. 房子着火了!
집에 불이 났다! | b. *房子已經着火了!
집에 이미 불이 났다! |

위의 예에서도 ‘了’는 참조 시간 이전에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了’의 선시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이 참조 시간에 가깝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됨을 보여주며, 이러한 의미 특징은 ‘已經’과 대조를 이룬다.

‘선시성’만을 나타내는 ‘已經’과 달리, ‘了’는 보다 더 허화되어 시간 의미 외에 다양한 양태나 어기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36) 我不去了。/ 我走了! 我回去了!
난 가지 않겠어/ 나 갈게!/ 나 돌아갈게!
- (37) 別給我做飯了。
나 때문에 밥 하지 마세요.
- (38) 吃飯了!/ 起床了!/ 上課了!
밥 먹자!/ 일어나자!/ 수업하자!

(36)은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결정이나 의지를, (37)은 부정 명령을, (38)은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어떤 행동을 촉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장에는 모두 ‘已經’을 넣을 수 없는데, 이는 ‘결정’이나 ‘의지’, ‘부정 명령’, ‘행동 촉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의 상황은 명확히 참조 시간 이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참조 시간 이후의 상황과 관련되므로 ‘已經’의 선시성 의미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5) (33)~(35)는 鄒海清(2012)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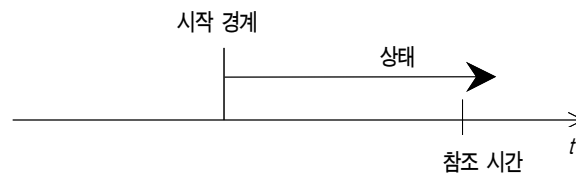
2) '已經'의 시간 의미와 화용적 기능과의 관계

본고에서는 '已經'이 기본적으로 '선시성'을 나타내며, 문맥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와 다름',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 '수량이 많음'(主觀大量) 등의 화용적인 의미 기능은 '已經'의 '선시성'이라는 시간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已經'의 다양한 의미들이 그 기본적인 시간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已經'의 '선시성'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은 Vendler(1957)에 따르면 상태(state), 활동(activity), 성취(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활동, 성취, 달성 등의 동적인 상황은 '사건'(event) 유형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네 가지의 상황 유형은 크게 상태(state)와 사건(event)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태'는 '大', '紅'과 같이 상황이 시작되면 종결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 반면 '사건'은 보통 '走', '停', '開' 등과 같이 상황이 시작되었다가 자연스레 종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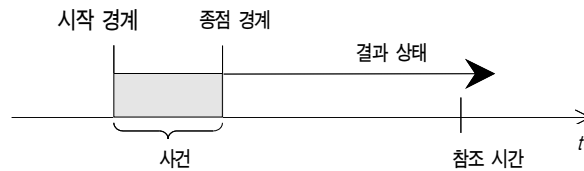
'상태' 유형의 상황에 '已經'이 출현하면 참조 시간 이전에 어떤 '상태'가 시작되어 참조 시간까지 그 상태가 유지됨을 뜻한다.

- (39) '상태'(state)와 '已經'이 나타내는 선시성
(예: 孩子已經大了/ 蘋果已經紅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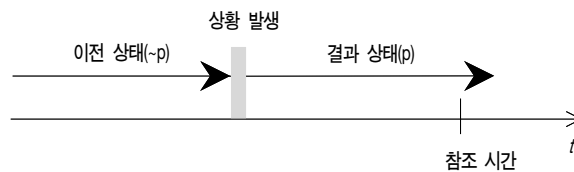
‘사건’ 유형의 상황에 ‘已經’이 출현하면 참조 시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고 그 결과 상태가 참조 시간까지 유지됨을 뜻한다.

- (40) ‘사건’(event)과 ‘已經’이 나타내는 선시성
 (예: 他已經走了/ 風已經停了/ 門已經開了)



따라서 ‘상태’나 ‘사건’ 유형의 상황에 ‘已經’이 출현하면,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발생하고 그 결과 상태가 참조 시간까지 유지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도식을 통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41) ‘已經’이 나타내는 선시성



즉 ‘已經’은 참조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상태’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상태가 참조 시간까지 유지됨을 뜻한다. 이때 상황 발생 이후의 결과 상태 (p)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의 상태(~p)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시간 구간 전체는 상황 발생 이전의 상태와 상황 발생 이후의 상태로 나뉘게 되고, 참조 시간은 상황 발생 이후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 구간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선시성’을 나타내는 ‘已經’이 어떤 문맥에서나 자유롭게 쓰

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已經'의 출현과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已經'을 쓰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已經'을 반드시 써야만 할 때도 있다.⁶⁾

- | | |
|-----------------------------------|--|
| (42) A: 響下課鈴了嗎?
수업 마치는 종이 울렸니? | B: a. 響了. b. 已經響了.
울렸어. 이미 울렸어. |
| (43) A: 你吃過了嗎?
너 밥 먹었니? | B: a. 吃過了. b. 已經吃過了.
먹었어. 이미 먹었어. |
| (44) A: 他來了嗎?
그는 왔니? | B: a. 他來了. b. 他已經來了.
그는 왔어. 그는 이미 왔어. |

위의 대답 부분에서 '已經'의 출현 여부는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문맥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여기서는 발화 시간) 이전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42)에서 A의 관심사는 수업 마치는 종이 발화 시간 이전에 울렸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참조 시간(여기서는 발화 시간) 이전의 상황 발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답변은 '已經'의 유무에 관계 없이 참조 시간에 대한 상황 발생의 '선시성'을 나타낸다.

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已經'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대답할 때, 이유가 되는 그 상황은 분명히 발화 시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 상황이 참조 시간(여기서는 발화 시간) 이전에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문맥상의 관심사가 아니다. 문맥상의 관심사는 단지 이유가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아래의 답변에서 참조 시간 이전에 상황이 발생했다는 '선시성'은 더 이상 문장의 초점이 아니므로, '已經'을 써서 '선시성'을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문법성이 떨어지게 된다.

6) (42)~(44)는 鄒海清(2012)의 예이다.

- (15) A: 你爲何遲到?
 넌 왜 지각했니?
 B: a. 我生病了。 b. *我已經生病了。
 난 아팠어. 난 이미 아팠어.
- (16) A: 他爲何不跟我們一起吃飯?
 그는 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지 않니?
 B: a. 他的父母來了。 b. *他的父母已經來了。(鄒海清2012)
 그의 부모님이 왔다.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왔다.

문장에 반드시 ‘已經’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문장이 전달하는 초점이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已經’을 써서 ‘선시성’을 부각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 (13) A: 你別把這件事告訴他。
 너 이 일을 그에게 알려주지 마라.
 B: a. *我告訴他了。 b. 我已經告訴他了。
 내가 그에게 알려줬어. 내가 이미 그에게 알려줬어.
- (14) A: 我希望成爲富人。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B: a. *你是富人了。 b. 你已經是富人了。
 너는 부자가 되었다. 너는 이미 부자다.

위의 두 예에서 A의 발화는 A가 참조 시간(여기서는 발화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3)에서 A의 발화는 ‘상대방이 아직 이 일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즉 A의 발화는 상황의 ‘선시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선시성’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참조 시간 이전에 상황이 이루어졌음(‘선시성’)을 부각시켜야만 하므로, 문장에 ‘已經’을 써야만 하게 된 것이다.

許諾(2015)는 위와 같은 예에 나타난 ‘已經’이 ‘문맥을 통해 기대되는 정보와 상반됨’ 즉 ‘기대와 다름’이라는 화용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때 문맥상 기대되는 정보, 또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정보란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다('선시성'의 부정)는 것이고, 이에 대해 화자는 '已經'을 통해 그러한 기대와 달리 참조 시간 이전에 해당 상황이 발생했음('선시성'의 긍정)을 나타낸다. 즉 소위 '기대와 다름'이라는 의미 기능에서, 문맥상 기대되는 것은 상황의 선시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대와 다름'이란 그러한 기대와 달리 상황의 선시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已經'은 '기대와 다름'이라는 화용적 의미 기능을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선시성'이라는 본래의 시간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鄒海清(2012)은 '已經'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함'이라는 화용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已經'은 가정문에도 쓰이므로 '已經'을 포함한 모든 문장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화자가 '已經'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건의 진실성'이 아니라 해당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 즉 상황의 '선시성'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已經'이 '수량이 많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主觀大量'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이때 수량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수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주관적으로 볼 때 수량이 많다고 여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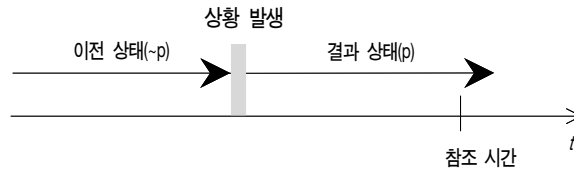
- (45) 我已經吃了三個饅頭了。
나는 이미 찐빵을 세 개 먹었다.
- (46) 我在北京已經住了三年了。
나는 북경에서 이미 삼 년 살았다.
- (47) 已經三點了。
벌써 세 시다.
- (48) 已經星期四了。
벌써 목요일이다.
- (49) 人家已經處長了，而我還是個科員。

7) (45), (46), (49)는 夏群(2011)의 예이고, (47), (48)은 許諾(2015)의 예이다.

그는 이미 처장인데, 나는 아직도 과원이잖아.

예를 들어 (45)의 썬빵 세 개, (46)의 3년, (47)의 세 시, (48)의 목요일은 객관적으로 많은 양, 긴 기간, 늦은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已經’과 함께 쓰이면 화자가 주관적으로 볼 때 수량이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시간이 늦음을 나타낸다. (49)에서도 ‘처장’이 가장 높은 직급은 아니다. 그러나 ‘已經’과 함께 쓰이게 되면 ‘처장’은 높은 직급으로 해석된다.

(41) ‘已經’이 나타내는 선시성



앞서 (41)에 관해 언급했듯이, ‘已經’은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이전에 발생했으며, 발생한 상황의 결과 상태가 참조 시간까지 유지됨을 나타낸다. 또한 상황 발생 이후의 상태는 그 이전의 상태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已經’은 전체 시간 구간을 상황 발생 전과 후로 나누고 참조 시간에는 상황 발생 이후의 상태에 속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은 ‘已經’이 수량과 함께 쓰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已經’이 수량(이나 단계,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도, ‘已經’은 전체 시간 구간을 해당 수량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고, 참조 시간에는 상황 발생 이후의 상태에 속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47)의 ‘已經三點了’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전체 시간 구간을 3시가 되기 전과 후로 나누고, 발화 시간에는 ‘3시가 된’ 이후의 상태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3시 이후에도 4시, 5시, 6시처럼 더 늦은 시간도 있겠지만, (47)의 화자에게 3시 이후의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3시 이전의 시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참

조 시간에는 3시가 된 이후의 상태에 속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간들과 비교할 때 3시는 늦은 시간으로 해석된다. (49) '人家已經處長了'의 화자도 전체 시간 구간을 처장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누고 발화 시간에는 처장이 된 이후의 상태에 속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처장 이전의 직급들과 비교할 때 처장은 높은 직급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발전하고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수량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已經'에 의해 전체 시간 구간이 상황 발생 전과 후로 나뉘고 또 참조 시간은 상황 발생 이후의 시간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상황의 발생 이후에는 상황 발생 이전에 비해 관련 수량이 많을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4. 결론

기존의 연구에서 '已經'은 참조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함이라는 '선시성'을 나타낸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了'의 시간 의미와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학자들은 '了'와는 대조적으로 '已經'만이 갖는 고유한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已經'이 시간 의미 외에도 '주관대량', '기대와 다름',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함' 등의 다양한 화용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已經'의 화용적인 기능들이 결국 '선시성'이라는 시간 의미가 특정 문맥을 통해 다양한 화용적 기능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已經'이 나타내는 '선시성' 의미를 다시 검토해 보았다.

'了'는 단지 참조 시간 이전에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낼 뿐이므로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 직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已經'은 어떤 상황이 참조 시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또 '了'는 참

조 시간이 발화 시간일 때는 단독으로 선시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참조 시간이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선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이와 달리 ‘已經’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경우에도 명확하게 선시성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문맥에 따라 ‘已經’의 출현이나 생략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시성’이 문맥상 초점으로 기능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已經’의 화용적 기능으로 주장되어온 것들은 사실상 이러한 ‘선시성’이 특정 문맥에 따라 다양한 화용적 기능으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이은수(2006) 「현대중국어 부사 ‘已經’과 ‘曾經」, 『중국문학연구』, 32.
- Li Charles, Sandra A. Thompson, R. M. Thompson(1982) “The Discourse Motivation for the Perfect Aspect: the Mandarin Particle LE”, Paul J. Hopper(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John Benjamins.
- 郭春貴(1997) 「時間副詞“已經”和“都”的異同」, 『世界漢語教學』, 2.
- 馬 眞(2003) 「“已經”和“曾經”的語法意義」, 『語言科學』, 1.
- 邵洪亮(2013) 「“已經”的體標記功能羨餘研究」, 『漢語學習』, 6.
- 望月圭子(2000) 「漢語裏的完成體」, 『漢語學習』, 1.
- 夏 群(2011) 「試析“已經”的語法意義」,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4.
- 許 諾(2015) 「談“已經”的反預期語用功能」, 『漢語學習』, 1.
- 張亞軍(2002) 『副詞與限定描狀功能』, 安徽教育出版社.
- 張言軍(2013) 「副詞“已經”的主觀情態功能考察」, 『信陽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33.
- 鄒海清(2012) 「“已經”的語用功能及句法表現」, 『雲南師範大學學報: 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10.

Abstract

A Semantic Study on the Adverb 'YIJING'

Lee, Eun-soo

'YIJING' has been considered to have the temporal meaning of 'anteriority', but this meaning somewhat overlaps with the meaning of 'LE2'. So scholars have tried to find some unique meanings of 'YIJING' which are distinct from 'LE2'. Recent studies claim that 'YIJING' has some pragmatic functions such as 'subjective large quantity', 'counter expectation' or 'confirmation of the truth of an event'.

But we claim that these pragmatic functions emerge from 'anteriority' depending on the context. In order to prove this, we reviewed 'anteriority' again.

'LE2' means that an event happened before reference time, and it is usually used when an event happened right before reference time. 'YIJING' also means 'anteriority', but it is used when an event happened relatively long before reference time. Besides, 'YIJING' is used only when 'anteriority' is the focus of the context.

Key words : YIJING, reference time, LE2, anteriority, pragmatic function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
--